



KOFA 아시안게임과 함께했다!

코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인기종목중 기계체조와 리듬체조를 맡아 대회 첫날부터 회원사별로 응원하는날을 정해 응원했다.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Blok B-28, Karawaci Office Park

Vol. **48** 2018/09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KOFA의 힘 창간 4돌 맞아.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 정통 소식지로 자리잡아

월간 코파의 힘이 창간 4돌을 맞이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협회와 단체에서는 대체로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해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와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KOFA는 꾸준히 그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왔다. 재인도네시아 신발협의회(회장:신만기)에서 발행하는 코파의 힘은 그간 인도네시아 한국 신발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소식 및 동향을 상호 공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전지역 무료 배송해 왔었다. 대외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은 물론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10여개국 약 7,000명의 독자에게 배포 되었다. 인도네시아 최대 직능단체인 코파는 월간 코파의 힘을 통해 협회 회원사간 단합을 도모했으며 올해로써 코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재인니 한국



신발협회의 탄탄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코파는 초대 송창근 회장의 창립으로 시작해 현 신만기 회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만기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꾸준히 발행되어 코파의 힘 발행이 타 협회의 부러움을 받고있는 이유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한국기업의 공통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앞장섰고 대정부 건의등 우리 교민기업을 위한 모범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힘의 바탕으로 월간 코파의 힘은 창간 4주년을 계기로 보다 더 알찬 내용과 정보로 한국 신발산업의 눈과 귀가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모범이 될 협회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코파의 힘은 다블로이드판으로 편집되고 있으며 매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표지 디자인으로 타 매체와의 차별화를 시도 했으며 소식지의 지면 편집디자인은 기존 매체와 다른 디자인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 왔었다. 본지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지면구성으로 코파 회원사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나갈 것을 창간 4돌 즈음에 약속하고 지속적인 발행으로 우리 신발인의 벗이 되고자 한다.

아시안게임 24년 만에 3위...대한민국선수단 인도네시아서 해단식



▲기념촬영 하는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자카르타=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에서 24년 만에 종합 순위 3위로 밀린 대한민국선수단이 2일 해단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한체육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팀 코리아 하우스'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해단식을 열고 선전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미 대회를 마친 각 종목 선수들이 귀국한 가운데 가장 늦게 일정을 끝낸 복싱, 남자하키, 유도, 스쿼시, 탁구 선수 약 80명이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16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선수단에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은 국민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의 첫 메달 획득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 된 한국 체육의 힘을 만방에 과시했다"며 "일치된 남북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 가치를 확인해 올해 아시안게임은 세계 평화를 더욱 견고하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

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우리 강세 종목이 세계적으로 평준화했다"며 "꾸준한 투자와 지원으로 메달 획득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조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에너지 오브 아시아'라는 대회 슬로건처럼 우리 선수단이 '에너지 오브 코리아'를 맘껏 보여줬다"며 "신명 나고 당당하게 아시아의 축제에 임해 코리아의 에너지를 확인케 했다"고 했다.



Since 1996
PT. JEONGSUK TECH ABADI

■ Contractor ■ Engineering ■ Electrical & Supplier

“정직한 기술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 Tel & Fax : (021) 5566 2989 ● Email : baeksy68@hanmail.net ● MB : +62 811 903 144
● Jl. Sawo Raya 19B, Kel. Cibodasari, Kec. Cibodas Perumnas 1 Tangerang Banten 15138



‘서민후보 vs 독재자 전 사위’ ... 인니 차기 대선구도 확정

조코위 대통령, 지난 대선 최대적수와 5년만에 재대결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선이 서민 후보와 기득권 세력인 군 장성 출신 정치인의 재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10일 일간 폼빠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57·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등록을 하고 재선 도전을 본격화한다.

부통령 후보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 울레마 협의회(MUI)의 의장인 종교 지도자 마루프 아민(75)이 지명됐다.

이는 인구의 87.2%를 차지하는 무슬림 유권자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왜 마루프 아민을 지명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각각 민족주의자와 종교계를 대표해 서로를 보완해 준다”고 설명했다.

중부 자바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과 소통형 리더십으로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일약 돌풍을 일으켜 군부나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첫 대통령이 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들어선 현재도 높은 인기

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적들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중국계 기독교도라는 점등을 들어 조코위 대통령에게 이슬람과는 거리가 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씌우려 노력해왔다.

조코위 대통령과 맞서는 주자는 군 장성 출신 정치인인 뿌라보워 수비안또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당) 총재다.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그는 수하르토 정권 말기 군부세력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9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조코 위도도-마루프 아민(왼쪽)과 뿌라보워 수비안또-산디아가 우노(오른쪽) (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 /Aditya)

뿌라보워 총재는 보수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2014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시됐지만, 조코위 당시 투쟁민주당(PDI-P) 후보가 일으킨 돌풍에 밀려 석패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계의 ‘젊은 괴’로 주목받는 산디아가 우노(49) 자카르타 부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골라 약점으로 꼽히는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당을 이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69)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뿌라보워 총재 진영에 합류하는 대신 아들 아구스 하리무뜨리 유도요노(41)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 했으나 막판에 불발됐다.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전국 득표율의 25%나 하원 의석의 20%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에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은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워 총재의 양자 대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3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당선가능성은 60.6%로 뿌라보워 총재(29.0%)를 크게 웃돌았다.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풀마크 인도네시아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러한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 수입법인소득세 인상 검토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일, 무역 수지 개선을 목표로 수입법인세(PPh) 비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끈판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재무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재무장관령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관계부처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OJK)과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수아하실 나자라 국장은 “PPh의 세율 인상은 소비재와 인프라 분야 자재 등에

적용된다”라고 말하며 “이밖에 소비재 수입세 인상이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소비재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타 부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입액은 1,07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자본재 30%, 소비재 27% 각각 확대됐다. 무역 수지는 30억 8,800만 달러 적자였다.

인니 상공회의소, 수출 사업 수익금 본국송환... 루피아 안정화 정책 본격 추진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는 회원사들이 해외 수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루피아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폼빠스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카딘은 14일 중앙은행의 페리 총재와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금융감독청(OJK) 등과 회의를 열었다. 로산 카딘 회장은 회의 후 “루피아 환율 안정화를 위해 해외 수출을 통한 수익을 모두 인도네시아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송환 자금 중 40~50%는 루피아로 바꾸도

록 요청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수출 사업에 따른 수익 중 인도네시아에 환류되고 있는 규모는 80~81%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루피아로 환전되는 것은 15%에 불과하



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루피아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수입 억제 방안 등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okh@sunstar.co.kr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kevin kang1103@gmail.com

신한銀, 인니 비대면채널 고도화 나서... 동남아 디지털금융 전략 본격화

신한은행의 동남아 비대면시장 진출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비대면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자 간 협업과 동시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금융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 비대면 계좌개설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5년 11월뱅크메트

로익스프레스(BME), 2016년 12월 센트럴내셔널은행(CNB)을 인수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을 출범시켰다.

이번에 신한은행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비대면계좌개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 계좌개설/신용카드 ▲입출금 예금 계좌개설 ▲신용카드 신청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영상통화 솔루션과 모바일뱅킹 앱과 비대면실명인증 연계개발을 위한 모바일 프레임워크, 알림메세지를 위한 푸쉬 발송솔루션 및 연동이 가능한 메시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물류산업, 두 자릿수 성장 지속 예상 전자상거래 수요와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 시설 투자의 결과



인도네시아의 물류산업은 전자상거래 수요와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투자의 결과로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Post & Parcel>은 인도네시아 물류협회(ALI)의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여 ALI의 잘디 회장이 "인도네시아 물류의 성장률은 1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잘디 회장은 현 인도네시아 물류에 대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 5년간

비즈니스 성장을 기하 급수적으로 추진해 왔고, 많은 급행물류회사가 새롭게 출범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물류 표준화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인도네시아의 17,000개 섬 지형은 해외 이주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ALI 웹사이트의 기사에서도 인도네시아 물류운송

협회(ALFI) 유끼 회장 역시 인도네시아 물류산업 성장률을 10%로 예상했다. 유끼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물류 부문은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비해 물류비를 줄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물류업체의 모든 이해 관계자는 '산업 4.0'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현지 진출 국내기업 소속 인도네시아 근로자 대상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대상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 소속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다.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100만 가구 사업'의 일환이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설 사업이다.

하나은행은 모기지론 출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소매금융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미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파라마운트 랜드와 주

택사업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지난 3월 기준 60여 개에 이르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순이익 634억원을 달성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은 영업점을 확대하고 소매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다양한 업무 제휴,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의 건강 선물

빨강야파즙

Rp. 600,000 60팩 / Box

한국건강원

빨강야파즙, 양배추즙, 강황즙, 우영한약즙, 우영즙, 늪은호박즙, 여주즙, 가지즙, 미나리즙, 시르식즙, 심전대보탕, 개소주 액기스, 장어 액기스, 코브라 액기스, 킹코브라 액기스, 배도라지즙, 배즙, 키위즙, 포도즙, 사과즙, 비아그라, 씨알리스, 우담, 저담, 사담

이슬브 증류액 개소주 증류액, 흑염소 증류액, 코브라 증류액, 자라 증류액, 잉어 증류액, 장어 증류액, 붕어 증류액, 마늘 증류액, 오가피 증류액

HP. 0811-92-3200 인도네시아 전 지역
Tel. 021-2931 3027 배달 드립니다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19(己亥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2019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5579 6569 입니다

아시안게임 비인기종목 코파가 함께했다!

자카르타 팰렘방 아시안게임이 지난2일 막을 내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종합3위를 기록했다. 코파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인기종목중 기계체조와 리듬체조를 맡아 대회 첫날부터 회

원사별로 응원하는날을 정해 응원했다. 인기종목인 축구와 야구등은 많은 교민이 참여하여 열띤응원을 벌였으나 비인기종목의 빈 응원석을 코파에서 그 자리를 매웠다. 이번대회에서 남자 마루에서 금메달 1, 남자 도마 은메달,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캐냈다.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



경원 콤프레샤는?

-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 경원 콤프레샤

Air Compressor & Equipment



스크류 공기압축기 스크롤 공기 압축기 오일프리 공기 압축기 왕복동식 공기 압축기 애프터 쿨러 에어 드라이어 에어필터 에어탱크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MR. Kim : +62 811 932 689
MR. Seo : +62 858 8042 4638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948
MR. Lee
Mobile : +62 811 105 957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www.dbkw2000.com

[부산 신발 100년, 세계를 뒀다] ①

'OEM' 의 달콤한 열매

주문자생산방식(OEM)은 부산 지역 신발산업을 이끈 주된 사업 모델이었다.

OEM의 핵심은 값싼 노동력이다.

1970년대 일본에서 주도권을 가져온 것도 바로 한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단순 OEM 시장에서 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밀린다.

지역업체들이 해외 공장을 만들었던 이유도, 중국에서 철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인건비가 연간 7~8% 이상 오르자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이 대안지로 거론되고 있다.

■ 두 번의 세계 정복
피란수도로 전국의 인구가 밀집됐던 부산은 노동집약적인 신



▲여공들을 위해 운영된 삼화고무 부설 여상의 졸업식 장면

점인 시어즈, 메이스 등에 납품됐는데 뛰어난 품질, 가격, 납품 기일 준수 등으로 신뢰성을 갖추며 세계 무대를 정복했다.

두 번째 정상정복은 1980~1990년대로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것이다.

이 시기는 냉연공정의 시기로 밀창의 모양을 잡는 금형을 만들고, 고무에 열과 압력을 가해 밀창을 만든 뒤 갑피에 접착제를 붙이는 방식이 주된 공법이 었다.

이는 신발 전체에 높은 열을 가하지 않아도 돼 다양한 기능성 소재가 사용되는 계기가 됐다. 부산기업은 신제품 개발과 생산을 주도 하며 세계 생산시장을 거의 독점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 신발은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인력의 시간적 미스매칭
여공들을 위해 운영된 삼화고무 부설 여상의 졸업식 장면마케팅 비용도, 연구개발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OEM의 열매는 달콤했다.

1990년 신발수출이 43억 달러

이제는 경남정보대, 동의대, 동서대,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등 지역에서 매해 1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만 오히려 초과 공급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서영순 교수는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했다면 디자인,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영역이 발전했겠지만 현재는 산업이 축소돼 고급인력들이 되레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며 “게다가 신발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신발산업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신발 시장

시장을 대만과 양분하고 있다.

OEM 기준에 맞는 스펙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다른 후발 국가에는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발 업계는 나이키·아디다스·뉴발란스·리복·아식스 등 업체들이 디자인, 마케팅, 유통을 맡고 생산은 한국과 대만 등의 전문 제조업체에 맡기는 분업 구조가 생겼다.

한국과 대만 업체들은 이 분업 구조 속에서 중국·베트남 등 경쟁국 업체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태광실업(주), 창신 Inc, 화승엔터프라이즈, 삼덕통상 등 주요 신발기업들이 100여 명에 달하는 연구인력을 별도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 OEM을 넘어 신발 연구·개발·생산(ODM)까지 요구받기 때문이다.

문창섭(삼덕통상 대표) 한국신발산업협회장은 “메이커 업체가 디자인을 알려주더라도 발목의 재질, 두께, 신발 밀창과 같은 것은 제조업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기

첫 번째 황금기는 1970년대 값싼 노동력으로 '수출 신화' 글로벌 브랜드와의 제휴로 1980~1990년대 제2 황금기 지금은 OEM 대신 ODM 시대 주문생산 넘어 연구·개발로 가능성 신발 시장 집중해야

로 최고조에 달해 단일품목 수출 2위에 달했을 때까지도 신발산업이 가장 활발했던 부산을 비롯한 한국의 어떤 지역에도 신발 제조기술을 가르치는 기술전문학교는 물론 대학은 없었다.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성으로 결판 내는 OEM 시스템의 '단맛'에 폭 빠져 있다 보니 자가 브랜드 육성이나 디자인, 마케팅, 특수기능화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신발산업을 선도해 갈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기업 내에서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것이 전부였던 셈이다.

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재 양성은 여전히 필수다.

경쟁국으로 부상한 대만은 영국 레스터시에 있는 레스터 컬리지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 신발 인재를 키운다.

국비 유학생을 선정할 때 전문 분야도 지정한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국내 기업 발전에 기여한다.

■ OEM을 넘어 ODM 시장으로?

아디다스 제품의 생산 개시를 알리는 신문광고.인건비 우위의 신발제조시장 중심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갔다.

한국은 생산기지를 이전한 뒤 고부가가치 신발, 기능성 신발



▲ 1980년대 후반 신발 제조업체들은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가 목표였다. 동길산 시인·한국신발관 제공

기능성 신발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예민한데, 오랜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디다스 제품의 생산 개시를 알리는 신문광고.

발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부산 신발의 첫 번째 세계 정복은 1970년대였다.

당시 부산지역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김영주 삼화 회장, 양정모 국제상사 회장 등은 내수시장에서 눈을 돌려 1962년 첫 신발수출을 기록한 이후 1971년 5000만 달러, 1975년에는 1억 9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당시 부산의 신발은 미국 백화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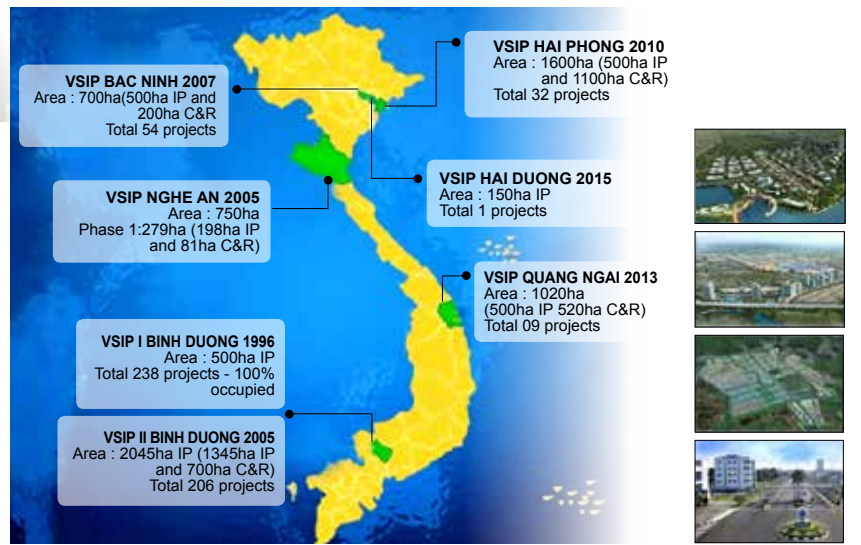
Kendal / Park By The Bay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안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못생긴 게 매력적... '어글리 슈즈' 의 진화



▲투박하고 못생겨서 더 매력적인 마르니의 '빅 풋 스니커즈'

패션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복학생 임영찬 씨는 여자친구가 새로 구입했다며 자랑하는 신발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임 씨가 본 친구의 신발은 촌스러운 컬러에 둥근 앞코가 못생긴 신발 그 자체였다. 실작 당황한 임 씨에게 여자친구는 "이게 유행하고 있는 어글리 슈즈"라며 "이렇게 못생긴 듯 하면서도 멋스러운게 어글리 슈즈의 매력"이라고 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못생긴 신발 '어글리 슈즈' 가 핫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어글리 슈즈는 오래돼 보이는 '빈티지', 옛날 스타일의 '복고', 평범함을 추구하는 '놈코어(norm core)' 등의 최신 유행 트렌드 뿐 아니라 편안한 착용감을 모두 충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어글리 슈즈는 캐주얼 룩이

나 에슬레저 룩과 같이 경쾌하고 스포티한 룩에 특히 잘 어울리며 패턴이나 컬러 디테일이 가미된 제품을 선택한다면 좀더 발랄한 느낌을 더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어글리 슈즈의 묵직한 느낌 때문에 키가 작고 둔해보인다고 느껴진다면 부츠컷이나 컷팅진을 매치해 발목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촌스러움이 멋스러움으로 평가 받으며 업체마다 어글리 슈즈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는 이탈리아 컨템포러리 브랜드 마르니(MARNI)는 올 가을 어글리 슈즈의 정점을 찍을 '빅 풋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빅 풋 스니커즈는 그동안 마르

니에서 선보인 적이 없던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로 과장된 디자인과 강렬한 원색의 조화가 눈에 띄는 제품이다. 브랜드 특유의 '재미'에 중점을 뒀 제작됐으며 80년대 런닝화를 재해석한 복고풍 디자인은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스포츠 브랜드 휠라 역시 어글리 러닝슈즈인 '휠라 트레이서'를 출시했다. 휠라 트레이서는 날렵하고 가벼운 착용감으로 걷고 신을 때 느껴지는 생동감을 극대화해 제품으로 구현했다. 앞서 휠라가 선보인 휠라블란테98, 보비어소리스99를 잇는 세번째 어글리 러닝슈즈로 기능성과 디자인, 착화감까지 두루 갖춘 점이 특징이다.

휠라 관계자는 "어글리 러닝슈즈가 또 하나의 글로벌 패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과 러닝화를 결합해 슈즈 본연의 기능성으로 차별



▲휠라 어글리 러닝슈즈 '힐라트레이서'

화한 휠라 트레이서는 올가을 1020세대는 물론 차별화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패션 피플과 러너들에게도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어글리 슈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패션이라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못생겼다며 아름답다는 기준과 너무 다르다고 말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어글리 슈즈는 초창기 극단적인 투박함을 극복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신발로 진화 중"이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서)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서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서)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버)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버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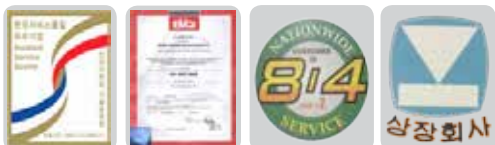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서)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 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서)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삼성전자 ‘스마트 신발갈창’ 시장 뛰어든다

삼성전자가 스마트 인솔(신발 갈창) 시장에 뛰어든다.



스마트인솔은 각종 센서를 달아 활동량과 걸음걸이 등을 측정해서 스마트폰 등으로 데이터를 보내 주는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다.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여러 기업이 스마트인솔을 상용화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삼성전자는 스마트 워치와 밴드 외 인솔 등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웨어러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 신발 연구개발(R&D)을 진행해 왔고, 최근 사업화 논의에 착수했다. 종기원이 개발한 성과를 정보통신모바일(IM) 부문이 사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소비자전쇼(CES) 공개와 연초 사업화를 목표로 주요 협력사와 스마트인솔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인솔은 각종 모션 센서를 탑재해 걸음걸이 모니터링과 교정, 이동 거리와 칼로리 계산 등 헬스케어에 활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각종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인솔에는 무선충전 기술이 탑재된다. 신발을 놓는 패드에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된다. 삼성전자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스마트인솔 분야 R&D를 가장 적극 펼쳐 왔다. 출원 특허만 40여건에 이른다. 스마트신발 분야에선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선도 업체다. 신발에 단일 가속도 센서를 탑재해 애플 아이팟, 아이폰과 연동해 운동량을 보여 준다.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동일한 기술에다 가슴에 심장박동수를 측정하는 밴드를 추가 장착하는 방식의 ‘미코치’를 선보인 바 있다. 언더아머 역시 스마트 신발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5년 약 6000억원을 투입해 피트니스 분야 앱 회사를 인수,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발보다 인솔에 각종 IT를 접목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내 반도체 회사인 티엘아

이도 최근 스마트인솔을 출시,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에 공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솔 자체 단가는 높지 않지만 신발은 누구나 신는다”면서 “연간 세계 신발 소비량이 100억 켤레가 넘고, 인솔은 신발 한 켤레에 두 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상당한 물량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신발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스마트인솔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애널리시스메이슨에 따르면 스마트인솔을 포함한 스마트신발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1300억원에서 2020년 5조7250억원 규모로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신문

아디다스 물 절약(Water-Saving)에 기여하는 신발



▲Adidas Outdoor의 Terrex Agravic BOA

트레일 러닝화는 아디다스 아웃도어 카테고리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아디다스 아웃도어 관리 디렉터인 Greg Thomsen은 말한다. “아디다스의 신발 헤리티지는 이 카테고리에 기초하고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디자인과 특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2019년 봄 시즌, 새로운 아웃도어 카테고리 제품인 Terrex Agravic BOA는 “물 절약 제품”이기도 하다. 170달러 가격의 이 트레일 러닝화는 거친 지형에 적합하며 양말 형태 구조 및 BOA 클로저 시스템을 사용해 발에 꼭 맞게 되어 있다. 이 제품은 민감한 쿠션을 위한 미드솔의 부스트와 놀라운 그립감의 컨티넨탈 고무 아웃

솔이 특징이다. 또한 새로운 “원액착색” 색상(염색 프로세스 불필요)이 제공된다. “아디다스의 2019년 봄/여름 트레일화는 안정성, 탄력성 및 보호기능이 필요한 전문적인 산악 및 트레일 러닝을 위해 만들어지고 원액착색이나 제로다이 색상(즉, 신발에 염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과 같은 지속성의 특징을 사용해 에너지 및 물 사용을 절약하게 된다.”고 Thomsen은 말한다. Footwear Insight

고어텍스로부터 3D 맞춤형 시대가 열린다

니트 신발 유행이 계속 상승세에 있다. 그리고 W.L. Gore는 일상적 용도에 적합한 메쉬 형태의 탄력 있는 니트 운동화에 대한 인기 상승에 힘입어 여기에 방수 기능을 더해 또 다른 기회를 공략하고 있다. 2019년 봄을 겨냥해, Gore는 고어텍스 3D 맞춤형 신발(양말처럼 발 모양을 따라 감싸며 방수, 통풍 기술을 갖춘 신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고어텍스의 “쾌적한 발 상태 유지 보장” 제품 브랜드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고어텍스 3D 맞춤형 신발을 통해, 소비자는 발 모양을 따라 더



▲고어텍스 3D 맞춤형 추가를 통해 제조사는 발 모양에 맞추어 방수, 통풍 기능을 더하게 되었다.

욱 효과적으로 감싸는 신발을 얻고, 제조사는 기존의 신발 디자인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라고 Gore Fabrics Division의 제품 전문가인 Silke Kemmerling은 말한다.

신기술 특징을 갖춘 신발은 아디다스 아웃도어, 살로몬의 자체 제작 Mesh 신발, 언더아머의 차세대 Hovr Phantom 신발과 함께 출시 준비 중에 있다. 선택된 브랜드는 2019년 초반 오프라인 상점 및 온라인에서 신발에 적용된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고어텍스 3D 맞춤형 신발은 제조사로 하여금 방수 통풍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3차원 기술을 통해 양말과 같은 느낌으로 발 모양을 감싸도록 할 것이다. Footwear Insight July-August

산업 전기 공사 전문 PT. YUCOM SANJEN



기술에 혼을 담다!

PT.YUCOM SANJEN은 16년의 인도네시아 산업현장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PLN 신설 및 증설 전기 / 계장 / 수, 변전 설비 고, 저압 / 역률방지 / PLC / CONTROL PANEL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0 222 / 5982 666 Fax : 5984 666
김중환 : 0815 930 1026 E-mail : hatibuka95@gmail.com



www.biss.kr



BISS 2018

BUSAN INTERNATIONAL SHOE SHOW
부산국제신발전시회

2018. 10.04^{THU} ~ 06^{SAT}
BEXCO 제1전시장(본관)

2018 BISS 핵심 컨셉

- **한국 신발산업 미래관 운영**
한국형 SPEED-SAMRT FACTORY 전시관
제조공정별 자동화 기계 전시·운영
- **시민 참여형, 체험형 이벤트 개최**
다양한 볼거리 공연, 신발퍼즐 참여형 이벤트
걸음걸이 측정, 보행분석 등 체험형 이벤트





테마는 불꽃놀이! '아식스' 에서 도쿄 올림픽 개막 2년 전을 기념하는 러닝 슈즈



'아식스(asics)' 는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막 2년 전을 기념해서 2020 도쿄 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상품을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이번 상품은 개막 2년 전을 기념해서 축제에서 볼 수 있는 '불꽃놀이' 를 테마로 했



▲TOKYO2020 OPEM TARTHER JAPAN

다.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엠블럼 모티브로 다양한 색상의 그래픽을 사용한 화려한 디자인이다.



▲TOKYO2020 PPEM TARTHER JAPAN

러닝 슈즈는 올해 탄생 35주년을 맞이하는 시리어스 러너(전문 마라토너)용 '타사 재팬(TARTHER JAPAN)' 을 기본 디자인으로 했다.

다양한 방향으로의 높은 그립력이 특징으로 어퍼의 앞쪽 부분과 뒤꿈치 부분, 깔창에 2020 도쿄 올림픽 엠블럼 모티브의 그래픽을 넣고 아식스 스트라이프에 그라데이션을 채용하는 등 특별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주니어 슈즈는 운동회에서



▲TOKYO2020 OPEM LAZERBEAM SC-MG

입등을 목표로 핏성과 안정성을 높인 '레이저 빔(LAZERBEAM) SC-MG' 가 기본 디자인으로 채용되었다.

컬러풀하고 인상적인 디자인을 채용했으며 파란 하늘을 이미지로 한 블루와 일출의 강인함을 이미지로 한 산뜻한 '선라이즈 레드' 등 2가지 컬러로 준비했다.



▲TOKYO2020 OPEM LAZERBEAM SC-MG



덴마크 프리미엄 스키커즈 브랜드 '아크코펜하겐' (ARKK COPENHAGEN) 한국 출시



'형태는 최소화하고 기능은 가능한 편리하게 한다' 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에서 탄생한 덴마크 프리미엄 스키커즈 브랜드 '아크코펜하겐' (ARKK COPENHAGEN)이 한국에 출시된다. 아크코펜하겐은 지난 2014년 10월 Street fashion에 열정을 가진 두 명의 덴마크 청년이 설립한 북유럽 프리미엄

스키커즈 브랜드다 2015년 첫번째 컬렉션 출시 이후 2주 이내에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현재는 전세계 39개국, 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덴마크 내 선호도 1위 스키커즈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아크코펜하겐 운동화는 100%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디자인되며, 여행과 북유럽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전세계에서 가장 미니멀리스트한 스타일의 운동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패션과 기능의 요소를 결합시켜 최고의 디자인과 편안한 착화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한국의 디자이너들과 모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크코펜하겐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무역점, 온라인 무신사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경제



'MIZUNO1906' 스니커 프로젝트 제4탄은 프랑스 파리의 'La MJC' 와 협업



미즈노가 라이프 스타일 슈즈 라인 'MIZUNO1906' 를 통해 올 2월부터 세계 각국의 스니커 편집 숍과 협업하는 스니커 프로젝트 'KA-

ZOKU' 제4탄 모델이 7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제4탄은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파리발 스트리트 매거진 《올건(ALL GONE)》을 제작하고 있는 마이클 듀포이 씨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La MJC' 와 협업했다

웨이브 라이더 시리즈의 첫 모델인 'WAVE RIDER 1' 를 기본으로 아프리카 아메리

칸 블랙의 컬러링을 채용해 키키한 분위기의 슈즈가 완성되었다.

발매일 전날인 7월 14일에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기획한 마이클 듀포이 씨를 도쿄 신주쿠의 'BEAMS JA-



PAN' 에 초대해 일본 국내 판매 이벤트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저녁에는 슈즈 마스터 프로듀서인 가와세 마코토 씨, 미타 스니커의 구니이 시게유키 씨, 빔즈의 아라이 신고 씨가 한 자리에 모여 마이클 듀포이 씨와의 대담 '스니커 스니커(참가비 무료)' 를 개최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ㄱ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다음 세대의 Albert 상륙



▲Albert가 포착한 소비자 데이터로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매장 내 발 스캐닝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이 분야의 개척자들은 다음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Lynco 브랜드의 인솔을 제조하는 Aetrex는 Albert 스캐닝 시스템의 강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출시해 매장과 소비자가 시스템이 포착한 정보를 더욱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상당량의 데이터를 포착한다,” 고 Aetrex의 회장 Larry Schwartz는 말했다. “그리고 매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Aetrex의 Albert 시스템은 18개의 카메라와 5000개의 센서를 포함하며 30초 안에 발을 3D로 스캔한다 (작년, 시스템이 출시되었을 때는 90초였다). 각 스캔은 넓이, 길이, 등 높이, 아치 높이, 발의 둘레, 압력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Schwartz는 말했다.

서 소비자는 고해상도로 측정된 발을 볼 수 있으며 “텔레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 주목할 가치가 있는 기능을 알게 된다.

최근 Aetrex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Schwartz는 TV 스포츠 분석가처럼 한 스캔본의 높은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인솔 및 러닝화 판매와 관련 있다. 다양한 종류의 발에 맞는 특정 브랜드가 있고 이는 매장이 소비자를 교육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방법이다.”

3D 측정값은 평균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유통 업체는 각 러너의 발에 대해 통합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다. 데이터가 공유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발에 대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들의 브랜드 선호도와 특이성이 포함된다. “매장과 온라인에서의 쇼핑이 더 편해진다,” 고 Schwartz는 말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경우 반품률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매장 내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도 있다.

한 예로 매장은 일간, 주간, 월간별로 얼마나 많은 스캔을 했는지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매장은 직원당 스캔량 또한 측정할 수 있다. 매장이 다수인 경우 매장 별로도 측정할 수 있으며 Aetrex는 스캔 리더보드를 생성하여 스캔을 제일 많이 하는 매장 10개를 알 수 있다.

스캐닝하는 동안 매장은 소비자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저장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신발 사이즈와 발의 특징에 대해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다고 Schwartz는 말했다.

“매장은 245 사이즈의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혹은 평발이나 특정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라고 그는 말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장은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을 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고 그는 덧붙였다. “스스로 소비자를 분석할

수 없는 소규모 매장에 더 유용할 것이다.”

Aetrex는 150개의 매장에 Albert 스캐너를 설치했으며 Schwartz는 이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시스템은 음성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며 3D 프린팅 인솔이 매장에서 제조되는 것 또한 먼 미래가 아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출처: Running Insight

공지사항 KOFA 소식지는 알차고 참된 내용으로 회원사 소식과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회원사 주소 및 이메일 변경 등으로 협회에서 공식 공문 및 소식 전달에 애로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원사 정보를 다시 정리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합니다.
 - 회사명
 - 대표자 (회원) 성명 : 한글, 영문
 - 개인 핸드폰번호
 - 회사 전화번호
 - 회사주소
 - 사용 가능한 이메일주소
 - 홈페이지 주소
- 코파 소식지는 현재 주소가 있는 회원사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파 소식지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위 정보를 다시 한번 협회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 indokofa@gmail.com 문의전화 : 021-5579-6569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비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장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 x 25mm)
3. 35mm Spandek (920 x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x 110 x 225)
5. Genteng Metal (기 와) (82 x 35 x 20)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반은 호주가 몬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장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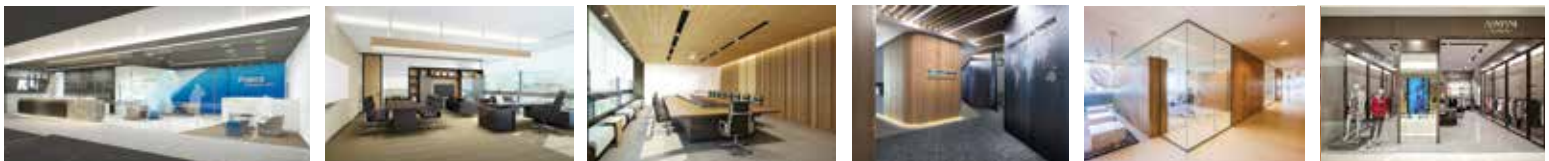


‘Think the Unthinkable!’

PT.INNOMATE is the BEST “Turn Key Solution Provider”
in One Stop Interior Design Service

INDONESIA CLIENT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POSCO INTI Indonesia / POSCO Daewoo / POSCO E&C Indonesia / POSCO Bio Inti Agrindo / POSCO P&S
POSCO History Hall Lounge(Jakarta) / STX Corporation / GS Global / KEPCO E&C / Hyatt Hotel Jakarta / Lock&Lock Indonesia / COSMAX Indonesia / LS IS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 ACS International School / Pratama Abadi Industri / Nara Summit Industri / Karya Timur Makmur



innomate

The Energy Building 32nd Floor, Kav. 52-53, Jl. Jend Sudirman, RT 5/ RW 3, Senayan, DKI Jakarta, 12190
Telephone: 021. 7919. 2006 / Mobile: 0812. 1011. 1000 / Fax: 021. 7919. 2062 / E-mail: pt.innomate@gmail.com